

# “참 고마운 당신들”



지크와 필.(작은 사진)



서동욱과 홍세완 코치.(작은 사진)

소통과 관심이 승리를 부른다.  
 지난 19일 KIA는 삼성과의 시즌 첫 만남에서 7-2의 값진 승리를 거뒀다. 3연패를 끊고 마침내 한국프로야구 첫 승을 신고한 지크 스프루일과 친정 복귀전 첫 타석에서 대타 홈런을 때려낸 서동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승리였다. 두 사람의 기본 좋은 하루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동안 운이 따르지 않던 지크였다. NC와의 개막전에서 볼펜 투수로 깜짝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던 그는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는 소사(LG)와 김광현(SK)이라는 난적을 만났다.  
 소사와의 맞대결에서는 예상과 달리 지크가 초반 싸움을 압도했지만 볼넷에 흔들렸고 좌익수 나지완의 실책성 플레이에 이르러 무너졌다. 김광현과의 경기에서는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기록했지만 타자들이 단 한 점도 내지 못했다.  
 3연패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소문만 ‘호랑이 사냥꾼’ 윤성환. 지크는 1회부터 삼성 구자욱에게 솔로포를 허용했고, 2연승 중이던 윤성환은 1회를 삼자범퇴로 막으

**KIA 지크 3연패 뒤 첫 승  
 피홈런 뒤 필 조연에  
 경각심 갖고 삼성전 임해  
 야수 득점·수비 덕에 승리**  
 며 다른 출발을 했다.  
 1회가 끝난 후 지크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다. 한국생활 3년차의 브렛 필이 윤성환이 어떤 투수이고, KIA 타자들이 얼마나 고전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  
 지크는 “윤성환이 어떤 투수인지 잘 몰랐는데 1회가 끝나고 필이 와서 설명을 해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0-1로 뒤진 4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솔로포도 터뜨려 주었다. 해터와 지크의 ‘한국생활 도우미’를 자칭한 필은 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한다.

**‘이적생’ 서동욱 대타 홈런  
 타격 자세 교정 홍세완 코치  
 닥공 주문 박홍식 코치에 감사  
 친정 복귀 첫 타석 잊지 못해**  
 필의 조연에 1구 1구 신중하게 피칭을 한 지크에게는 또 다른 지원군이 있었다. LG전에서 아찔한 수비로 지크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나지완이 이번에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주며 팽팽하던 승부의 추를 KIA로 기울였다. “야수들이 점수를 내줄 때 내주었고, 좋은 수비도 보여줬다. 과정이 좋아서 기분이 더 좋다”고 웃던 승리투수 지크가 가장 먼저 언급한 동료의 이름 역시 나지완이었다.  
 서동욱의 한방에도 든든한 힘이 있었다.  
 5-1로 앞선 8회 2사 2루에서 서동욱이 친정 복귀 후 첫 타석에 섰다. 서동욱은 투볼에서 삼성 김동호의 투심을 견어올렸다.

시원하게 뺏은 공은 외야 팬스를 넘어 담장을 지나 장외포가 됐다. 친정 복귀 후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서동욱은 3루 베이스를 지난 뒤 손을 뻗어 관중석을 가리켰다.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아내를 향한 세리머니였다.  
 서동욱은 “아내가 경기장에 와 있었다. 경기장을 돌면서 찾아보는 데 잘 보이지 않더라. 아내 앞에서 홈런을 쳐서 기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홈런 뒤에는 옛 룸메이트 홍세완 코치의 관심도 있었다. 서동욱은 홈런을 친 뒤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박홍식 코치님께서 공격적으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다. 방망이를 더 세워 치라는 홍세완 코치님의 조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세완 코치는 “선수시절에 함께 룸메이트를 했다. 아내는 후배였는데 경기 전 훈련을 하는 것을 보니까 폼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생각하고 쳤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주형 “유격수 4번 타자입니다”

## 덕아웃 T 특독

▲그게 팩트죠 = 장성호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이 KIA 덕아웃에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장성호는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친정팀의 해설을 담당했다. 구수한 입담과 매서운 분석으로 좋은 해설을 하면서 KIA 선수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KIA의 최고참 김원섭이 “좋네 좋아” 라면서 1년 선배의 손을 붙잡았고, 이성우도 뛰어난 해설이었다며 폭풍 찬사를 보였다. 이성우는 “정말 해설 좋았다. 괜히 2000안타를 친 게 아니시더라”며 “그런데 요즘 그런대로 잘치고 있는데 수비형 포수라며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식으로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삼)동섭이도 제구가 10개 중 2개나 되고 있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농담을 했다. 이에 장성호는 “그게 팩트죠”라고 응수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4번 김주형입니다 = 유격수로 변신한 김주형이 마침내 4번 자리까지 꿰찼다. 김주형은 20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유격수 겸 4번 타자로 출전하면서 ‘대형 유격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경기에 앞선 라인업을 공개한 김기태 감독은 “애리조나 캠프 때 유격수 김주형

을 계산에는 넣어줬지만 뭘까 싶기는 했다. 실수도 있지만 기 안 죽고 잘하더라. 힘든 포지션이다. 타격감도 좋고 그래서 앞에 배치했다”고 김주형의 4번 기용에 대해 설명했다.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주형이 4번에 들어서면서, 2011년 8월 4일 잠실 두산전에서 4번타자 이범호가 깜짝 유격수로 등장한 이후 모처럼 KIA의 유격수 4번 타자가 탄생했다. 주전 유격수가 4번 타자를 맡은 것은 현재 KIA 타격 코치로 뛰고 있는 홍세완 코치(2007년 5월 29일)에 이어 처음이다.  
 ▲저도 인형 주세요 = 홈런 타자 서동욱이 구단에 요구한 것은 인형이었다. 19일 경기가 끝난 뒤 구단 프런트를 붙잡고 “나도 인형을 주라”는 서동욱이 눈에 띄었다.  
 사연은 이랬다. 서동욱은 이날 8회 투런포를 친 뒤 홈으로 들어와 구단 로고가 새겨진 수건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그런데 앞서 4회 홈런을 친 필에게는 호랑이 마스코트 인형이 홈런 선물로 돌아왔다. 서동욱은 “아내가 인형을 좋아한다. 아내에게 주게 나도 인형을 주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서동욱은 관중석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친정 친정 복귀전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밀·당’ 대박

〈밀어치고 당겨치고〉

## 박병호 이틀 연속 홈런 ‘시즌 4호’... 팀 5-6 패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의 한국인 거포 박병호(30)가 시즌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은 1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7경기 7.2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벌어진 밀워키 브루어스와 홈경기에서 6번타자 1루수로 출전해 2-5로 끌려가던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측 스탠드 2층에 떨어지는 솔로 아치를 터뜨렸다.  
 전날 밀어서 우중간 팬스를 넘긴 데 이어 이번엔 당겨서 포물선을 그렸다.  
 박병호는 밀워키 우완 구원 투수 타일러 손버그의 빗맞은 초구 커브(시속 126km)를 퍼 올려 까마득히 날아가는 타구를 날렸다. 비거리는 126m로 측정됐다. 박병호의 시즌 홈런은 4개, 타점은 5개로 늘었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추격 포에 대타 에디 로사리오의 중월 2점 홈런으로 8회에만 3점을 뽑아 5-5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5-6으로 패해 개막 9연패 이후 연승 행진을 4에서 마감했다.  
 이날 4타수 2안타를 친 박병호는 이틀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해 박리구 투수들에게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박병호의 시즌 타율은 0.233(43타수 10안타)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 신태용 감독 “2승1무로 조 1위 하겠다”

## “올림픽 축구 D조 1위 유력 아르헨 8강서 피하고 싶어”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20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둬 조 1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지난 14일 리우 올림픽 축구 조 추첨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한 신태용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D조 조 1위가 예상되는 아르헨티나를 (8강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조 1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리우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멕시코, 피지, 독일과 C조에 포함됐다.  
 이어 “피지와는 첫 경기는 반드시 잡은 다음에 독일과 경기에서 총력을 기울여 승리든, 무승부든,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일본일담.  
 -조 추첨 결과에 대한 소감과 구상은 ▲독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

았는데, 마지막에 독일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래도 무난한 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최악은 피했다고 본다. D조에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2승 1무를 해야 D조 1위가 예상되는 아르헨티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경기인 피지를 잡고 나서 독일 경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 1위가 목표인가. ▲조별리그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 1위로 올라가야 원하는 목표에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와일드카드 구성은 끝났다. ▲머릿속에 구상은 있지만, 혼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율리 슈틸리케 감독님과 이용수 기술위원장님과 협의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손흥민이 최근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하

는데 대한 우려는. ▲손흥민은 기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다. 올림픽팀에 잘 찾아들면 폭발력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  
 -홍정호 경기도 보고 왔는데. ▲내가 갔을 때는 홍정호가 7분밖에 뛰지 못했다. 이번에 독일을 들리면서 구자철, 홍정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 홍정호도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온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우올림픽 경기장 둘러본 소감은. ▲축구의 나라답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본다. 1,2차전에 열리는 사우바도르의 25~30도로 온화하고, 3차전 브라질리아는 지금은 좀 춥다. 베이캠프를 어디로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6월 소집 계획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소집할 수 있는데, 아직 국내로 할지, 해외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이제 돌아왔으니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연합뉴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축구 조 추첨에 참석한 뒤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목표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FC 루키 조주영 K리그 클래식 6R 베스트11

프로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린 광주 FC의 루키 조주영(22)이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엘로더비’ 등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6경기를 평가,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프로데뷔전에서의 첫 슈팅을 역전골로 장식한 광주 공격수 조주영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위원회는 “조주영이 교체 투입 5분 만에 프로 데뷔골을 작렬했다. 광주의 연패를 끊은 결승골이다”며 호평을 했다.  
 후반 33분 ‘패트리엇’ 정조국을 대신해 그라운드 투입된 조주영은 교체



5분 만에 김민혁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리며 전남의 골방을 흔들었다. 팽팽하던 1-1의 승부를 기울인 결승골이었다. 광주는 이날 역시 프로데뷔골을 기록한 홍준호, 프로데뷔전에서 전남 스테보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골키퍼 윤보상 등 ‘신인 3인방’의 맹활약 속에 3연패에서 탈출했다. 2승1무3패(승점 7)가 된 광주는 골득실차에서 밀려 수원 삼성에 이어 7위에 랭크됐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과 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